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4 pp. 2713-2725, 2015

http://dx.doi.org/10.5762/KAIS.2015.16.4.2713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학령기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미치는 영향

채명옥[1*]
[1]청주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Academic Stress and Self-Esteem on Practice of Life Safety Behaviors in School-Age Children

Myung-Ock Chae[1*]
[1]**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요 약 다양한 요인들이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이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데 영향을 주므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안전생활 실천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서울,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소재의 초등학교 5, 6학년 510명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안전생활 실천행동 영향요인은 안전교육 도움정도(β=.254, p<.001), 학업스트레스(β=-.222, p<.001), 학년(β=.201, p<.001), 성별(β=-.180, p<.001)로 나타났고,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23.9%였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의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고취시키기 위해 학업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와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Because a variety of factors affects children in the development process in order to act practice of life safety behaviors aggressivel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stress, self-esteem and practice of life safety behaviors of school-age children.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elf reported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510 Korean school-age children using convenient sampling methods from April 1 to 30, 2013.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the Help of safety education (β=.254, p<.001), academic stress (β=-.222, p<.001), grade(β=.201, p<.001), gender(β=-.180, p<.001)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practice of life safety behaviors of school-age children.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23.9% of practice of life safety behaviors. Therefore, to facilitate the practice life safety behaviors in school-age children, academic stress needs to be decreased by efficient management and intervention.

Key Words : Academic Stress, Self-Esteem, Practice of life safety behavior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는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그러한 발전과 편리함은 현대인의 생명과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최근 일어난 세월호 대참사는 편리한 생활 속에 물질적 풍요에 치중하여 소홀하고 무뎌진 안전의식의 부재 때문이며, 국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의 집약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충격과 뼈아픈 교훈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의 사고 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자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1].

2012년 통계청 결과에 따른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1

*Corresponding Author : Myung-Ock Chae(Cheongju Univ.)
Tel: +82-10-3379-9328 email: 7702cmo@korea.com
Received January 12, 2015 Revised (1st February 16, 2015, 2nd March 10, 2015)
Accepted April 9, 2015 Published April 30, 2015

~9세는 운수사고(transport accidents), 불의의 물에 빠짐(익사, drowning and submersion), 추락(falls),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exposure to smoke, fire and flames)의 순으로, 10~19세는 운수사고, 불의의 물에 빠짐, 추락의 순으로, 질환이 아닌 사고사와 같은 사망의 외인(外因)이 10위 안에 포함되어 아동사망의 주요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결과는 현대의학의 발달로 질환에 의한 사망과 선천적인 기형을 뚜렷이 감소시켰으나 위와 같은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과 신체장애는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3]. 그러나, 안전에 대한 의식은 사회적으로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우선되어야 비로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강요하기보다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의식변화를 고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은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과도한 경쟁 풍토를 조장함으로써 학생들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부모의 도를 넘은 학업요구로 인해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2012년 통계청의 청소년 통계결과에 따르면, '학교생활(62.1%)'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32.9%)'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느끼는 학업스트레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5]. 그러나, 최근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에도 부모나 친구, 교사, 학교 등 다른 부분에 비해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6,7],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들도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의 영향으로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8,9]. 더구나 과중한 학업스트레스는 우울 및 불안, 각종 일탈 행위나 학교생활 부적응뿐만 아니라 자살 생각과 시도로 진행될 수 있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고[10,11], 흡연이나 음주 등의 건강생활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0,12] 아동의 안전생활 실천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Coopersmith[13]는 개인이 자신의 중요성, 유능함, 자신의 가치에 대해 형성하고 습관적으로 유지하는 자아평가를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인간행동의 기본적 동기로 개인의 정신건강 및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인관계 및 학교생활적응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응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아동기에는 무엇보다 자아존중감이 발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4,15].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대인관계,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의 중요 요소이면서 인간행동의 결정적 요인으로써[16,17], 기본적으로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발달단계상 학령기 아동은 새로운 것에 대해 무엇이든지 알고 싶어 하고 배우려하며 활동적인 스포츠나 놀이를 선호하는 반면, 위험요소에 대한 예지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안전사고의 고위험군에 해당된다[18]. Chae[3]의 연구에서 이 시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을 토대로 하여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 바 있다. 그러나,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대한 안전생활 실천태도, 대인관계 지지, 자기 효능감, 충동성에 의한 설명력은 52.0%로, 이보다 더 다양한 요인들이 학령기 아동의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의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그 결과에 따라 아동 개개인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안전생활 실천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고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파악한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안전관련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안전생활 실천행동 정도를 확인한다.

셋째, 학령기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안전생활 실천행동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학령기 아동의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안전생활 실천행동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에 소재한 6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2, 검정력 .90, 유의수준 .05로 하였을 때 430명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520명을 편의 표집 하였고 510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학업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Cho[19]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생활 스트레스 척도 중 학업 관련 스트레스 요인 15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 영역은 시험 성적과 관련된 스트레스 4문항, 과제 관련 스트레스 4문항, 학습내용 스트레스 3문항, 학원 스트레스 4문항으로 총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Cho[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였다.

2.3.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20]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lf-Esteem Scale)를 Kim과 Lee[21]가 학령기 아동에 맞게 수정한 8개 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0이었다.

2.3.3 안전생활 실천행동

본 연구에서는 Kim[22]이 「안전교육 지침서」의 내용을 근거로 개발한 사고예방에 대한 실천 도구 15문항을 사용하였고,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어쩌다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으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더 잘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Kim[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5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을 통해 3문항을 제외하고 12문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는 .60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13년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을 받고(IRB No. 48-11), 대상 학교에 설문 조사 협조 공문을 보낸 후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의 기관장과 보건교사, 담임교사와 부모의 협조를 구한 뒤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포함한 연구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자가 학령기 아동이므로 담임교사와 보건교사가 설문지에 응답하는 도중에도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응답을 거부해도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난 후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다는 서명을 받았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WIN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안전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안전생활 실천행동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안전생활 실천행동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안전관련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안전생활 실천행동 정도는 t-test 와 ANOVA,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및 안전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상남도가 각각 23.7%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학생 51.4%, 남학생 48.6%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학년은 5학년 52.4%, 6학년 47.6%였다. 성격은 '활발하고 명랑하다'가 58.8%, 학교생활은 '즐겁고 성실하다'가 71.8%, 친한 친구의 수는 '많은 편'이

Table 1. Sociodemographic and Safety-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Living area	Seoul	121	23.7
	Gyeongsangnam-do	121	23.7
	Gyeonggi-do	117	22.9
	Chungcheongbuk-do	107	21.0
	Jeollanam-do	44	8.6
Gender	Female	262	51.4
	Male	248	48.6
Grade	5	267	52.4
	6	243	47.6
Character	Lively and cheerful	300	58.8
	Usually	192	37.6
	Quiet and do not say	18	3.5
Life of school	Pleasant and sincere	366	71.8
	Usually	140	27.5
	Often absent	4	0.8
Number of friends	Many	238	46.7
	A little	221	43.3
	Nothing much	39	7.6
	Not at all	12	2.4
Record	Very good	46	9.0
	Good	316	62.0
	Not good	135	26.5
	Very bad	13	2.5
Use of health unit	Yes	319	62.5
	No	191	37.5
Concern for the safety	Very much	56	11.0
	A little	158	31.0
	Usually	209	41.0
	Nothing much	64	12.5
	Not at all	23	4.5
Compliance for safety rules	Very much	66	12.9
	Good	186	36.5
	Usually	212	41.6
	Nothing much	42	8.2
	Not at all	4	0.8
Need for safety education	Yes	476	93.3
	No	34	6.7
Help of safety education	Very much	127	24.9
	A little	179	35.1
	Uncertain	140	27.5
	Nothing much	56	11.0
	Not at all	8	1.6
Reason that you do not practice	Not yet habituation	382	74.9
	Did not want to	55	10.8
	Did not know the importance	42	8.2
	Other	31	6.1

46.7%, 학업성적은 '잘하는 편'이라고 62.0%가 응답하였다.

안전관련 특성에서는 사고로 인한 보건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62.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규칙 이행정도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1.0%, 41.6%였으며, 안전교육은 93.3%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안전교육이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조금 도움이 된다'가 35.1%,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알지만 습관이 안되서'가 74.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2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안전생활 실천행동 수준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안전생활 실천행동 수준은 Table 2와 같다.

학업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81점,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92점, 안전생활 실천행동은 4점 만점에 평균 2.54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ces in Academic stress, Self-esteem and Practice of life safety behaviors by Sociodemographic and Safety-related Characteristics (N=510)

Variables	Category	Academic stress		Self-esteem		Practice of life safety behaviors	
		Mean ± SD	t or F(p)	Mean ± SD	t or F(p)	Mean ± SD	t or F(p)
Living area	Seoul[a]	2.91±1.17	7.40 (<.001) a>e, b>e c>e, d>e	3.80±0.91	4.45 (.002) a<b, b>c c<d	2.54±0.35	0.25 (.908)
	Gyeongsangnam-do[b]	2.86±1.05		4.11±0.77		2.54±0.27	
	Gyeonggi-do[c]	2.96±1.15		3.74±0.76		2.55±0.30	
	Chungcheongbuk-do[d]	2.85±1.12		4.05±0.82		2.51±0.27	
	Jeollanam-do[e]	1.97±0.80		3.91±0.83		2.53±0.28	
Gender	Female	2.81±1.11	-0.03 (.976)	3.96±0.81	-1.12 (.265)	2.60±0.27	-4.88 (<.001)
	Male	2.81±1.14		3.88±0.85		2.47±0.32	
Grade	5	2.71±1.15	4.76 (.030)	3.99±0.84	3.50 (.062)	2.61±0.27	33.15 (<.001)
	6	2.93±1.09		3.85±0.81		2.46±0.31	
Character	Lively and cheerful[a]	2.85±1.17	0.51 (.602)	4.11±0.77	20.80 (<.001) a>b, a>c	2.52±0.33	1.96 (.142)
	Usually[b]	2.75±1.06		3.67±0.85		2.55±0.24	
	Quiet and do not say[c]	2.78±1.06		3.46±0.64		2.65±0.22	
Life of school	Pleasant and sincere[a]	2.73±1.12	4.53 (.011) a<b	4.11±0.73	39.42 (<.001) a>b, a>c	2.55±0.31	1.59 (.204)
	Usually[b]	3.02±1.11		3.45±0.86		2.52±0.26	
	Often absent[c]	3.65±0.86		3.03±1.31		2.30±0.56	
Number of friends	Many[a]	2.70±1.16	2.27 (.079)	4.16±0.74	20.39 (<.001) a>b>c a>d, b>d	2.56±0.33	1.28 (.282)
	A little[b]	2.86±1.10		3.82±0.79		2.52±0.27	
	Nothing much[c]	3.05±0.93		3.29±0.88		2.56±0.30	
	Not at all[d]	3.31±1.25		3.22±1.05		2.43±0.14	
Record	Very good[a]	2.70±1.23	1.22 (.301)	4.35±0.71	21.53 (<.001) a>c, b>c a>d, b>d	2.58±0.25	1.47 (.223)
	Good[b]	2.76±1.09		4.05±0.78		2.55±0.31	
	Not good[c]	2.94±1.16		3.55±0.74		2.50±0.30	
	Very bad[d]	3.12±1.25		3.16±1.38		2.48±0.21	
Use of health unit	Yes	2.88±1.11	-1.66 (.098)	4.00±0.79	-2.81 (.005)	2.52±0.31	1.23 (.221)
	No	2.71±1.14		3.79±0.87		2.56±0.29	
Concern for the safety	Very much[a]	2.73±1.23	1.89 (.111)	4.25±0.91	7.38 (<.001) a>d, b>d c>d, a>e b>e	2.71±0.30	17.12 (<.001) a>b>d a>c, c>d a>e, b>e
	A little[b]	2.76±1.02		3.98±0.80		2.58±0.26	
	Usually[c]	2.79±1.15		3.95±0.70		2.54±0.25	
	Nothing much[d]	3.16±1.06		3.58±0.91		2.31±0.35	
	Not at all[e]	2.61±1.34		3.45±1.17		2.41±0.39	
Compliance for safety rules	Very much[a]	2.51±1.14	5.83 (<.001) a<d, b<d	4.50±0.67	15.93 (<.001) a>b>c a>d, b>d	2.71±0.26	25.89 (<.001) a>b>c>d a>e, b>e c>e
	Good[b]	2.68±1.10		4.04±0.78		2.60±0.26	
	Usually[c]	2.90±1.07		3.69±0.79		2.50±0.27	
	Nothing much[d]	3.35±1.21		3.63±0.92		2.25±0.36	
	Not at all[e]	3.92±0.87		3.91±0.86		1.97±0.32	
Need for safety education	Yes	2.78±1.11	1.94 (.060)	3.96±0.80	-3.02 (.005)	2.55±0.29	-3.69 (.001)
	No	3.23±1.30		3.42±1.02		2.33±0.34	
Help of safety education	Very much[a]	2.58±1.12	8.39 (<.001) a<d, b<d c<d, a<e	4.25±0.74	9.14 (<.001) a>b, a>c a>d	2.66±0.29	16.81 (<.001) a>c, b>c a>d, b>d
	A little[b]	2.73±1.12		3.94±0.76		2.58±0.23	
	Uncertain[c]	2.81±1.05		3.72±0.86		2.45±0.30	
	Nothing much[d]	3.45±1.03		3.67±0.81		2.35±0.35	
	Not at all[e]	3.88±1.38		3.69±1.54		2.42±0.31	
Reason that you do not practice	Not yet habituation[a]	2.76±1.10	3.63 (.013) a<b	3.98±0.81	2.94 (.033) a>b	2.56±0.28	7.51 (<.001) a>b, b<d
	Did not want to[b]	3.27±1.17		3.64±0.93		2.38±0.35	
	Did not know the importancec	2.81±1.11		3.84±0.81		2.47±0.36	
	Otherd	2.66±1.17		3.87±0.84		2.61±0.27	
Total		2.81±1.12		3.92±0.83		2.54±0.30	

3.3 제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안전생활 실천행동 정도

학령기 아동의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안전생활 실천행동 정도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은 지역(F=7.40, p<.001), 학년(t=4.76, p=.030), 학교생활(F=4.53, p=.01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분석 결과 지역에서 전라남도의 대상자가 서울, 경상남도, 경기도, 충청북도에 사는 대상자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더 낮았고, 학교생활이 '즐겁고 성실하다'라고 답한 대상자가 '그저 그렇다'라고 답한 대상자보다 학업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 안전관련 특성에서는 안전규칙 이행정도(F=5.83, p<.001), 안전교육 도움정도(F=8.39, p<.001),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F=3.63, p=.013)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사후분석 결과 안전규칙 이행정도에서 '매우 잘 지킨다'와 '잘 지킨다'라고 답한 대상자가 '별로 안 지킨다'라고 답한 대상자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교육 도움정도에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와 '조금 도움이 된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별로 도움이 안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더 낮았을 뿐 아니라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서도 학업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알지만 습관이 안되서'로 답한 대상자가 '하기 싫어서'로 답한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에서는 지역(F=4.45, p=.002), 성격(F=20.80, p<.001), 학교생활(F=39.42, p<.001), 친한 친구의 수(F=20.39, p<.001), 학업성적(F=21.5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후분석 결과 지역에서 경상남도의 대상자가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대상자보다, 충청북도의 대상자가 경기도에 사는 대상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격에서 '활발하고 명랑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다'와 '조용하고 말이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이 '즐겁고 성실하다'라고 답한 대상자가 '그저 그렇다'와 '싫고 자주 결석한다'로 답한 대상자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친한 친구의 수는 '많은 편', '조금 있다', '별로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고, '많은 편'과 '조금 있다'로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 '전혀 없다'로 응답한 대상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은 '매우 잘하는 편'과 '잘하는 편'이라고 답한 대상자가 '잘 못하는 편'과 '아주 못하는 편'이라고 답한 대상자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안전관련 특성은 사고로 인한 보건실 이용 경험(t=-2.81, p=.005), 안전에 대한 관심정도(F=7.38, p<.001), 안전규칙 이행정도(F=15.93, p<.001), 안전교육의 필요성(t=-3.02, p=.005), 안전교육 도움정도(F=9.14, p<.001),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F=2.94, p=.033)의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분석 결과 안전에 대한 관심정도에서 '아주 관심 있다'와 '조금 관심 있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별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높았고, '아주 관심 있다'와 '조금 관심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거의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안전규칙 이행정도에서는 '매우 잘 지킨다', '잘 지킨다', '보통이다'라고 답한 대상자의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매우 잘 지킨다'와 '잘 지킨다'라고 답한 대상자의 경우는 '별로 안 지킨다'로 답한 대상자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안전교육 도움정도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조금 도움이 된다'와 '잘 모르겠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로 응답한 대상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알지만 습관이 안되서'로 답한 대상자가 '하기 싫어서'로 답한 대상자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생활 실천행동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은 성별(t=-4.88, p<.001), 학년(t=33.15,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안전관련 특성에서는 안전에 대한 관심정도(F=17.12, p<.001), 안전규칙 이행정도(F=25.89, p<.001), 안전교육의 필요성(t=-3.69, p=.001), 안전교육 도움정도(F=16.81, p<.001),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F=7.5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안전에 대한 관심정도에서 '아주 관심 있다', '조금 관심 있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답한 대상자의 순으로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더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주 관심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보통이다’와 ‘거의 관심 없다’로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더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금 관심 있다’라고 답한 대상자가 ‘거의 관심 없다’라고 답한 대상자에 비해, ‘보통이다’라고 답한 대상자가 ‘별로 관심 없다’라고 답한 대상자에 비해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더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규칙 이행정도에서 ‘매우 잘 지킨다’, ‘잘 지킨다’, ‘보통이다’, ‘별로 안 지킨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순으로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더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우 잘 지킨다’와 ‘잘 지킨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혀 안 지킨다’로 응답한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더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교육 도움정도에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와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답한 대상자의 경우 ‘잘 모르겠다’와 ‘별로 도움이 안된다’로 답한 대상자보다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더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알지만 습관이 안되서’와 ‘기타(잊어버려서, 바빠서 등)’로 응답한 대상자가 ‘하기 싫어서’로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더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안전생활 실천행동 간의 상관관계

안전생활 실천행동은 학업스트레스(r=-.297, p<.001)와 음의 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r=.184,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r=-.251, p<.001)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5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학령기 아동의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안전관련 특성 중에서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차이를 나타냈던 요인(성별, 학년, 안전에 대한 관심정도, 안전규칙 이행정도, 안전교육의 필요성, 안전교육 도움정도,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요인(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을 회귀식으로 분석하였다. 변수는 더미변수화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안전교육 도움정도, 학업스트레스, 학년, 성별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4].

독립변수 간의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941-.989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11-1.063으로 10이하를 나타내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잔차의 독립성 검증 결과 표준화 잔차가 -4.254-2.290이고, Durbin-Watson 값이 1.944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회귀식의 설명력은 23.9%였다.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전교육 도움정도(β=.254, p<.001), 학업스트레스(β=-.222, p<.001), 학년(β=.201, p<.001), 성별(β=-.180, p<.001)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Academic stress, Self-esteem, Practice of life safety behaviors (N=510)

Variables	Academic stress	Self-esteem	Practice of life safety behaviors
Academic stress	1		
Self-esteem	-.251 (<.001)	1	
Practice of life safety behaviors	-.297 (<.001)	.184 (<.001)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Practice of life safety behaviors (N=510)

Variables	B	β	S. E	t	p
Help of safety education	1.130	.254	.178	6.338	< .001
Academic stress	-.059	-.222	.011	-5.566	< .001
Grade	1.813	.201	.352	5.155	< .001
Gender	-1.621	-.180	.351	-4.616	< .001
	Constant = 36.203	F(p) = 39.569(<.001)		R2 = .239	

4.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안전생활 실천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초등학교 5, 6학년의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81점으로, 같은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Ahn, Oh와 Kim[23]의 연구에서 평균 2.29점이었던 것보다 높고, Kim, Lee와 Jang [24]의 연구에서 평균 3.24점이었던 것보다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Ahn, Oh와 Kim[23]의 연구가 서울 및 지방도시 7개 초등학교 학생 228명을 연구대상으로 한 반면, Kim, Lee와 Jang [24]의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학생 36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자의 수나 자료수집 지역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성별 구성비 등 에 따라 평균점수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Chang 등[25]의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는 평균 2.80점이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별 차이가 없는 결과였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빠른 성장을 하는 시기로 발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7],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대와 압력을 받아 상대적으로 많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24]. 이렇듯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업스트레스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사회적 영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개입이 조기에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92점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Lee 와 Yeo[26]의 연구에서 평균 2.95점, Park[17]의 연구에서 평균 3.44점이었던 것보다 높았고, 초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Park[27]의 연구에서 평균 3.50점이었던 것보다 높은 결과였다. 자아존중감이란 사회적 상호작용 산물로 타인의 반응에 반영되어 있는 자신의 행위를 봄으로써 자신에 대해 알게 되고, 부모, 교사, 동료와 같은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고 하였으며[28,29], 자아존중감 형성에는 자기표현 훈련, 집단 활동, 사회 정서적 지지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 바[27],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반면, Lee와 Yeo[26]와 Park[1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어 수업시간 발표를 통한 자기표현 기회와 조별 집단활동 등의 경험에 차이가 있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의 자기표현 훈련과 집단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부모를 비롯한 교사와 친구들에 의한 정서적 지지 강화가 요구된다.

대상자의 안전생활 실천행동은 4점 만점에 평균 2.54점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 Jung과 Park[30]의 연구에서 평균 3.28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22]의 연구에서 평균 2.60점이었던 것보다 낮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과 Lee[31]의 연구에서 평균 2.38점이었단 것보다는 높았다. 이렇듯 학령기 아동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전생활 실천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생활이 가정이나 부모 중심에서 벗어나 친구들과의 단체 활동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여 순간적 충동에 의한 행동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안전의식이 필요하며, 안전에 대한 의식은 장기적으로 형성되므로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령기 아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도덕, 가치관, 습관이 형성되고 발달되는 시기이므로 안전교육을 통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32].

학업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지역, 학년, 학교생활이었고, 안전관련 특성에서는 안전규칙 이행정도, 안전교육 도움정도,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서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지역적으로는 전라남도 강진의 대상자가 서울, 경상남도 부산, 경기도 일산,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대상자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에서 사교육과 관련해 학업 열기가 과열된 학원 밀집 지역은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보다 아동과 청소년을 주로 양육하는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강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울, 경상남도 부산, 경기도 일산, 충청북도 청주가 대도시이므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학년별로는 5학년보다 6학년이 학업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적과 진학에 대한 부담이 더욱 구체화되는 것은 물론, 부모를 비롯한 주위의 기대가 커지면서 학업스트레스도 가중되는 경

향을 보인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7]. 그리고, 학교생활이 '즐겁고 성실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개인의 내적 성향도 있겠지만 개인외적 요인 중 사회적 지지 즉, 부모나 또래, 교사와의 관계에서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면 학업스트레스도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는 바[33,34],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진 않았지만 친한 친구의 수가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일수록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안전관련 특성에서 안전규칙 이행정도는 '매우 잘 지킨다'와 '잘 지킨다'라고 순응적이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대상자가 '별로 안 지킨다'라고 대답한 대상자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더 낮았고, 안전교육 도움정도에서도 '매우 도움이 된다'와 '조금 도움이 된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대상자가 '별로 도움이 안된다'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대상자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더 낮았으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더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도 '알지만 습관이 안되서'로 답한 대상자가 '하기 싫어서'라고 부정적으로 답한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분노와 좌절 등의 부정적 감정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35],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초등학생일수록 매사에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 사회 순응적인 안전규칙 이행이나 안전교육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정도의 스트레스는 성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아동이 받는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의 적극적인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지역, 성격, 학교생활, 친한 친구의 수, 학업성적에 따라, 안전관련 특성은 사고로 인한 보건실 이용 경험, 안전에 대한 관심정도, 안전규칙 이행정도, 안전교육의 필요성, 안전교육 도움정도,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의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 부산의 대상자가 서울과 경기도 일산 대상자에 비해, 충청북도 청주의 대상자가 경기도 일산에 사는 대상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서울과 경기도 일산은 수도권으로 경상남도 부산이나 충청북도 청주에 비해 더 대도시에 속하며, 학업스트레스가 더 높았던 지역과 일치한다. Moon과 Jwa[36]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주위 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과중한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처럼,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학업스트레스 감소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격이 '활발하고 명랑하다'라고 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다'와 '조용하고 말이 없다'라고 답한 대상자에 비해, 학교생활이 '즐겁고 성실하다'라고 답한 대상자가 '그저 그렇다'와 '싫고 자주 결석한다'라고 답한 대상자에 비해, 친한 친구의 수가 많은 편이라고 대답한 대상자일수록, 학업성적은 잘 하는 편이라고 대답한 대상자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성격,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와 적응에도 영향을 주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은 사회성이 높고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좋으며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낮은 것은 물론[37], 학교수업, 학교규칙 등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한 것[38]과 맥락을 같이한다. 안전관련 특성에서 사고로 인한 보건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대상자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고를 경험한 대상자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고를 경험한 대상자이더라도 보건실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 과정에서 사고경험을 먼저 확인한 후 보건실 이용 경험유무를 비교하는 단계가 필요했으리라 생각된다. 안전에 대한 관심정도는 '아주 관심 있다', '조금 관심 있다', '보통이다'라고 보다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의 대상자가, 안전규칙 이행정도에서는 안전규칙을 잘 지킨다고 답한 대상자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안전교육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알지만 습관이 안되서'라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자아존중감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적응을 위해 기초가 되는 필수적 심리특

성으로[39],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감정적인 문제나 행동적 어려움에 대한 방어막을 형성해 주어[40] 안전 관련 인식과 행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전생활 실천행동 정도에서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에 따라, 안전관련 특성에서는 안전에 대한 관심정도, 안전규칙 이행정도, 안전교육의 필요성, 안전교육 도움정도,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같은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면, Park[41]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5학년이 유의하게 안전생활 실천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초등학생은 쉬는 시간이나 체육, 놀이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모든 활동시간을 놀이로 인식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운동과 놀이 등을 통한 많은 실외활동으로 안전생활 실천행동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전생활 실천행동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 것은 학령 후기가 청소년기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며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 것[42]과 같은 맥락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안전관련 특성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대상자일수록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더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Lee[43]의 연구에서도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안전행동 실천을 더 잘 하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 본 연구에서 안전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일수록 실제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더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필요하다고 답한 대상자가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더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Sim[44]의 연구에서도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안전생활 실천점수가 높았던 것과 일치한 반면, 소극적인 성격일수록, 학교생활이 적극적일수록, 인지된 학업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안전생활 실천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안전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하기 싫어서'라고 답한 대상자에 비해 '알지만 습관이 안되서'라고 답한 대상자가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더 잘 이행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인식이 안전생활 실천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안전생활 실천행동은 학업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업스트레스와 안전생활 실천행동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Weber[45]는 스트레스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면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과도해 지면 심리적, 행동적, 생리적 측면에서 문제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질수록 순응적인 태도는 감소하고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저해하는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안전생활 실천행동의 양의 상관관계는 Lee[4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행복하고 안정적이며, 애정이 있고 에너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순발력이 있어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보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47]고 하였으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위험한 환경에서 많은 에너지와 순발력을 사용할 수 있어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이행하는데 긍정적인 기초가 되는 심리적 특성이라 이해할 수 있다.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전교육 도움정도, 학업스트레스, 학년, 성별의 순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23.9% 설명하였다. 안전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안전생활 실천행동 정도가 높았는데, 안전교육이 안전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고취시켜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영향을 주고, 상대적으로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불안과 충동성이 감소해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했던 Chae [3]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Lee [46]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안전실천 수준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포함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과 안전생활 실천행동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가 없는 관계로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 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Lee [46]의 연구가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본 연구가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자에서 차이가 있고, 안전실천 정도를 파악하는 도구도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안전생활 실천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초등학교 5, 6학년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안전생활 실천행동 수준은 중간이상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는 지역, 학년, 학교생활, 안전규칙 이행정도, 안전교육 도움정도,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자아존중감은 지역, 성격, 학교생활, 친한 친구의 수, 학업성적, 사고로 인한 보건실 이용 경험, 안전에 대한 관심정도, 안전규칙 이행정도, 안전교육의 필요성, 안전교육 도움정도,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 안전생활 실천행동은 성별, 학년, 안전에 대한 관심정도, 안전규칙 이행정도, 안전교육의 필요성, 안전교육 도움정도,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안전생활 실천행동은 학업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안전생활 실천행동 영향 요인은 안전교육 도움정도, 학업스트레스, 학년, 성별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3.9%였다 아동의 안전생활 실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변수로 학업스트레스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와 동일한 학년의 연구대상과 도구를 이용해 반복연구를 실시하여 자아존중감과 안전생활 실천행동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대한 안전교육 도움정도, 학업스트레스, 학년, 성별에 의한 설명력이 다소 낮은 결과를 나타냈으므로, 학령기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특징적으로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들을 조사·반영하여 설명력을 높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안전생활 실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새롭게 확인된 안전교육 도움정도, 학업스트레스, 학년, 성별을 포함하여 안전생활 실천행동 이행을 설명하는 모형 구축과 검증하는 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M. S. Lee, K. O. Park, “School safety education factors predicting injury prevalence among Korean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21, No.2, pp.147-165, 2004.

[2] Statistics Korea. 2012 annual report on the causes of death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bmode=read&aSeq=308559(accessed November, 19, 2013).

[3] M. O. Chae, “A structural model for the practice of life safety behavior in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4, No.2, pp.119-128, 2014.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4.44.2.119

[4] Y. S. Kim, J. Y.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heavy academic demands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academic burnout”,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10, No.3, pp.115-126, 2012.

[5] Statistics Korea. 2012 annual report on the youth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accessed November, 19, 2013).

[6] J. H. Ko, M. J. Kim,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ementary students: The role of defense mechanism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22, No.4, pp.161-183, 2009.

[7] H. Y. Min, “School age boys and girls' stress in daily stress types and theirs influences on depression”, Family and culture, Vol.21, No.3, pp.109-127, 2009.

[8] H. J. Lee, E. H. Jung, “The predictive model of elementary students’ academic stress using data mining”,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1, No.1, pp.195-211, 2012.

[9] H. J. Hwang, “A study on the stress and its relative effects of variable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19, No.1, pp.193-216, 2006

[10] I. T. Kim, D. U. Lee, I. G. Lee, N. J. Sung, K. H. Park, “Life style, school record and stress in the twelfth grade male students of a high school in Pohang province”, *Dongguk Journal Medicine*, Vol.9, No.2, pp.61-74, 2002.

[11] Y. H. Kim, M. S. Yoo, “Moderating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 on academic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Korean Hom Management Association, Vol.28, No.5, pp.225-234, 2010.

[12] J. N. Byeon, Y. T. Cho, “School smoking rate as a social factor affecting the adolescent smoking in Korea

: Multi-level analysi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27, No.4, pp.7-16, 2010.

[13]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1967.

[14] A. Tesser, Self-esteem. in M. B. Brewer & M. Hewstone (Eds.), Motivation and emotion, Malden, MA: Blackwell, 2004.

[15] M. Mann, C. M. H. Hosman, H. P. Schaalma, N. K. de Vries, "Self-esteem in a broad-spectrum approach for mental health promotion", Health Education Research, Vol.19, No.4, pp. 357-372, 2004.
DOI: http://dx.doi.org/10.1093/her/cyg041

[16] M. R. Heo, S. W.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locus of control and environment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19, No.4, pp.79-102, 2013.

[17] Y. M. Park, "Relationship of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parental educational level and occupational aspira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10, No.1, pp.95-108, 2011.

[18] S. S. Kwon, "Development and effect evaluation of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higher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18, No.2, pp.45-61, 2005.

[19] B. H. Cho, "Development of daily hassles scale and daily hassles coping behaviors scal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Vol.15, No.3, pp.5-21, 2006.

[20]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21] S. H. Kim, J. H. Lee, "Test of a hypothetical model for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4, No.1, pp.22-34, 2008.

[22] S. J. Kim, "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injury preven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6, No.1, pp.20-29, 2010.
DOI: http://dx.doi.org/10.4094/jkachn.2010.16.1.20

[23] J. Y. Ahn, M. K. Oh, J. S. Kim, "The effect of maternal learning involvement behavior perceived by children to their academic stress and moderating effect of optimism and peer support,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Vol.21, No.3, pp.241-253, 2012.

[24] Y. J. Kim, J. Y. Lee, J. Y. Jang, "The cluster of academic stress, defense mechanism, and their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11, No.1, pp.3-11, 2013.

[25] H. W. Chang, J. H. Kim, S. Y. Auh, I. K. Jung, "An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on the life-style behaviors and mental health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24, No.3, pp.27-72, 2012.

[26] E. M. Lee, T. C. Yeo,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self-encouragement and school life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12, No.3, pp.385-398, 2013.

[27] K. N. Park, "Differences and effect of after-school class experiences on elementary students' sociality and self-esteem",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2, No.5, pp.45-56, 2014.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4.12.5.45

[28] C. H. Cooley, Human nature and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 1902.

[29] G. Mead,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4.

[30] J. N. Lee, M. A. Jung, J. W. Park, "Effects of school safety education on safety behavior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2, No.4, pp.506-513, 2006.

[31] D. Y. Jung, S. H. Lee, "Influences of safety-practice and cognitive failure on safety accident among middl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8, pp.3665-3671,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8.3665

[32] H. S. Park, M. S. Jung, Y. S. Kim, "General status of primary schools' education for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safety control and students' perceptions on safe life", Nursing Science of Kyungpook, Vol.4, No.1, pp.67-80, 2000.

[33] C. R. Nho, S.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related stress, perceived school grad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mediating effects of personal factors and social support on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39, No.1, pp.39-68, 2012.

[34] K. S. Moon, "Mediating role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suicidal impulse i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7, No.5, pp.143-157, 2006.

[35] R. Agnew,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38, No.4, pp. 319-361, 2001.
DOI: http://dx.doi.org/10.1177/0022427801038004001

[36] Y. J. Moon, H. S. Jwa,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psychological health in adolescents-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38, No.1, pp.353-379, 2008.

[37] H. J. Chae, K. H. Park, "The relation of Children's body image and self-esteem, stress and maladjustment",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4, No.1, pp.137-151, 2000.

[38] J. Y. Lee, K. A. Lee, "Individual and familial factors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Vol.16, No.2, pp.261-276, 2004.

[39] S. Harter, Cause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 F. Baumeister(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NY: Plenum Press, 1993.
DOI: http://dx.doi.org/10.1007/978-1-4684-8956-9_5

[40] C. A. Anderson, "Attributional style, depression, and loneliness: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American and Chinese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letin, Vol.25, No.1, pp.482-499, 1999.
DOI: http://dx.doi.org/10.1177/0146167299025004007

[41] P. N. Park, "A study of primary school students' practicing safety procedure during their school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16, No.2, pp.85-95, 2003.

[42] Y. Kim, H. J. Hwang, "Influence of child's stress on problem behavior: centered on the resilience mediator effect according to a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1, pp.217-243, 2014.

[43] M. S. Lee,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safety concerns affecting students' safety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22, No.4, pp.41-56, 2005.

[44] E. S. Sim, "Safety-awareness, safety-practice and accident occurrence among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Vol.18, No.2, pp.258-275, 2004.

[45] H. Weber, Stress. In R. Fernandez-Ballesteros(Ed.), Encyclopedia of Psychological assessment,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03.
DOI: http://dx.doi.org/10.4135/9780857025753.n194

[46] Y. M. Lee, "Safety-practice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elementary students in a rural area",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0, No.5, pp.1115-1125, 2009.
DOI: http://dx.doi.org/10.5762/KAIS.2009.10.5.1115

[47] M. Rosenberg, Self 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Leaky, R. L(Eds.),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New York Academic Press, 1985.

채 명 옥(Myung-Ock Chae) **[정회원]**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간호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의 안전, 성장발달, 시뮬레이션교육